

##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서의 유학생생활

동덕여자대학교

구은비

긴장하면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던 것이 어제 일만 같은데, 곧 오차대에서의 유학생생활이 끝난다니 시간의 빠름이 놀라우면서도 쓸쓸한 기분입니다. 아쉬운 마음을 안고서 이번 학기를 되돌아보며, 오차대에서의 유학생생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처음엔 모든 게 다 낯설었습니다. 간단한 메일을 쓰는 것에도 긴 시간이 걸리고, Moodle의 사용법을 몰라 헤매기도 했습니다. 저의 질문에 언제나 상냥히 답변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선생님들 덕에 유학생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의 처음엔 일본에 입국할 수 있을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환학생의 한 학기 간 입국하지 못하고 모든 수업을 한국에서 온라인으로(zoom)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수강신청을 할 때 학부 정규과목이 대면수업으로 전환되면 수업이나 시험에 출석할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아, 주로 유학생 대상의 수업을 듣고 정규과목은 청강을 했습니다.

유학생 대상의 수업에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과 함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은 주로 토론이나 발표로 이루어져서, 여러 의견이나 신선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인인 저는 만나 볼 기회가 없었던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은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정규과목은 [일본사개설]을 청강했습니다. 유학생 대상의 수업보다 어렵고 해석이 힘든 부분도 많아서 수업에 따라가는 것만으로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었고 항상 관심이 많았던 일본의 역사를 일본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일본에 입국하지 못한 교환 유학생들을 위해 [교환학생 HR]등의 수업에서 온라인으로 일본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기뻐합니다. 그리고 지도교수이신 모리야마 교수님께서 초대해 주신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에 관심이 있는 일본인 학생과 이야기를 나눈 것도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과 만나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기에 정말 즐거운 유학생생활이었습니다.

오차대에선 많은 발표와 작문 과제를 했습니다. 저는 일본어 회화와 작문이 서툴러서 처음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져서 짧은 기간에 능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일본어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정확히 전달하는 공부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본에 입국할 수 없었던 것은 정말 아쉽지만, 상냥한 선생님들과 학우들

정말 즐거운 유학생생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 간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지도교수이신 모리야마 교수님, 매달 보고서를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주신 따뜻한 말씀이 유학생생활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환유학생인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신 하기와라 교수님과 마츠다 교수님, 국제과의 오노님께도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튜터이신 나카오 씨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에 제게 수업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